

배알도 섬 정원에서 특별한 여름 보내세요

광양시, '섬의 날' 섬머데이 추천 '별 헤는 다리' 등 낭만의 해상로드 아름다운 석양 감상하며 '노을' 명 휴식과 힐링 선사하는 생명 공간

오는 8일 '섬의 날' 을 맞아 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광양 배알도 섬 정원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0.8ha 규모의 배알도는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떠 있는 섬으로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등에 사도(蛇島)로 표기돼 뱀섬으로 불리다가 망덕산을 향해 배알하는 형국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배알도는 망덕포구, 수변공원과 2개의 해상보도교로 연결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섬이 됐다. '별 헤는 다리'와 '해맞이다리'는 배알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낭만의 해상로드다.

배알도 섬 정원은 자연의 생태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다. 특히 초록 잔디가 웅장처럼 펼쳐진 섬 마당의 아가자기한 꽃밭과 배알도라는 빨간색 명칭 포토존은 감성을 자극하며, 이곳 벤치에서 볼 수 있는 섬마당의 여백과 해



배알도를 찾은 어린이 관광객들이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상보도교의 유려한 곡선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아름다운 석양은 긴 여운을 남기며 한동안 놀(노을) 명에 빠지게 한다.

섬이 가진 지형과 기운을 그대로 살린 돌레길을 따라 걷노라면 감춰져 있던 섬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배알도 정상 해운정에 오르면 질푸른 바다와 고담한 소나무를 만날 수 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배알도 섬 정원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생명 공간이다"며 "섬의 날을 맞아 생태, 역사의 보고인 배알도에서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여름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무한(8=∞)가능성을 상징하는 8월 8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복합문화공간 '어울림센터' 첫 삽

331억원 투입 풍덕동에 건립

순천시가 풍덕동 배수펌프장 유수지에서 '순천 시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4일 기공식을 가진 어울림 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공간과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33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뒤 6월 조달청을 통해 도급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어울림 센터는 풍덕 배수펌프장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건축미를 살리고 활용도를 높인다.

어울림 센터가 기존 유수지에 건립되는 만큼 지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집중호우 시 우수 저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 특징이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시설로 다목적 체육관과 휠체어 보관실, 헬스장, 운동치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어울림센터 조감도.

는 시설로 사용된다.

도서관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하나 되는 특별 공간의 자료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그동안 오천지구와 풍덕동 인근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했는데 어울림 센터가 들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농업인재활센터 이용자 2.6배 증가

최근 3개월 1457명 이용

곡성군이 농부중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인재활센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 올해 2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시설 운영을 재개한 이후 4월까지 3개월간 누적 이용 인원이 553명이었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센터 이용객이 1457명으로 2.6배 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증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농업인재활센터가 보유한 장비 일부를 체육인재활센터와 공유하면서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곡성군은 2016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재활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부중이라고 일컬어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기능이다.

센터 1층은 재활운동실로 로잉머신 외 14종의 장비가 갖춰져 있다. 재활의사 및 물리치료사 등 전문 전문인력이 해당 장비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



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2층은 순환운동실이다. 전남도 최초로 30평 규모의 그룹 순환 시스템 운동기구 6종을 도입했다. 체중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량을 설정해주며, 한 달간의 개인운동 기록이 집에 저장돼 근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군은 현재 농업인재활센터는 오전과 오후 각 2회씩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

여수시 16일~10월 31일 지역사회건강조사

여수시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 건강수준 측정을 위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시군구 표본으로 무작위 선정된 만 19세 이상 주민 900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 행태, 의료 이용, 중독 및 안전 의식, 삶의 질 등 19개 영역 138개 항목이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원 4명이 대상 주민을 직접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는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조사와 지역선택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법정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주민 건강수준 파악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건강통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득량만 주의보 발령

보름달물해파리 624t 수거

고흥군이 지난 한 달간 득량만 일대에서 보름달물해파리 600t을 수거하는 등 해파리 구제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7월 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득량만 일대에서 보름달물해파리 624t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온이 높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개체 수가 93% 증가했다고 군은 밝혔다. 득량만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0㎡당 144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가 발견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은 약하나 어획물과 함께 섞여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구를 훼손하는 피해를 준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해 보름달물해파리 구제사업에 투입했다.

군은 해파리 절단기 및 인망을 보유한 어선 61척, 다목적 정화선 1척, 지도선 1척으로 선단을 구성하고 구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민들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여름 휴가지 인기

캠핑·액티비티·물놀이장 갖춰

아직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자.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숲속에서 시원한 계곡물,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진>

시원한 계곡물로 채워지는 제암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한다. 이곳은 숙소와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인접하고 있어 캠핑을 하면서 피서를 즐기기도 하는 캠핑족들에게 최고의 휴가지로 꼽힌다.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야영장 데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에코어드벤처, 질러나, 곰썰매 등

이 있다. 에코어드벤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모험시설로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연 친화성과 성취감 향상으로 이어져 발달기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곰썰매는 출발지 높이 15m, 총 길이 238m 규모로 썰매를 타고 내려가며 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체험객이 찾고 있다.

이밖에도 숲을 체험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이 갖춰져 있다. 160ha 규모의 산림 안에 48개의 숙박시설과 야영장 51개소가 운영중이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도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대표 명소다. 또 숲 해설 프로그램은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다양한 생태를 이해하고 배우는 산림휴양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